



인디자인관련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전문가 방한 “인디자인 써보세요~ 아주 좋아요”

한국어도비시스템즈(대표이사 지준영, www.adobe.com/kr)는 지난 1월 24일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비즈니스센터에서 ‘다이나믹한 차세대 출판 워크플로인 Adobe InDesign CS3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에는 최근 방한한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전문가인 ‘팀 콜’과 ‘루퍼스 더클러’의 그룹 인터뷰였다. 또한 어도비는 같은 날 1시 30분 코엑스에서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 그랜드 볼룸 1층에서 ‘어도비 인디자인(Adobe InDesign) CS3 세미나’를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

인디자인 사용업체 점차 증가

세계 유수의 인쇄, 출판사, 신문사, 잡지사들이 편집프로그램을 기존의 퀵 대신 어도비 인디자인 CS3로 바

꾸고 있다. 그동안 퀵의 사용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았던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업체들을 중심으로 인디자인 CS3의 도입이 늘고 있다. 게다가 인디자인의 편리하고 다양한 툴로 인해 인디자인을 배우고자 하는 편집디자이너들이 늘고 있다. 이번 인터뷰와 세미나를 위해 방한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분야의 전문가인 팀 콜(Tim Cole)과 루퍼스 더클러(Rufus Deuchler)는 ‘인디자인 CS3’의 툴을 효과적으로 설명해주었다. 팀 콜은 “인디자인은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인쇄 출판사, 신문 잡지사, 광고대행사 및 디자인회사들의 오랜 고민이었던 경쟁력 있는 콘텐츠, 최고급 아웃풋, 충성도 있는 고객, 효율적인 워크플로, 유통채널 확대를 위한 모든 것을 지원할 완벽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에서도 인디자인 사용자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이나믹한 차세대 출판 워크플로인 Adobe InDesign CS3 플랫폼’이라는 주제로 열린 그룹 인터뷰에서 팀 콜과 루퍼스 더클러는 인디자이너의 다양한 팁을 소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인디자이너 사용자를 위한 한글 가이드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어도비의 계획은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사면 그 안에 프로그램 매뉴얼이 있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그 매뉴얼을 읽어보지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인쇄된 매뉴얼보다는 필요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어도비 홈페이지에서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어로 된 가이드는 없다.

전통적으로 인쇄시장에서는 쿼크를 많이 사용한다. 그런데 인디자이너와 쿼크가 호환이 안되는데.

지금 쿼크를 사용하고 있는 디자이너들에게 갑자기 인디자이너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인디자이너는 쿼크보다 우수한 팁들을 제공하고 있다. 표를 만드는 등 단순한 반복작업을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등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디자이너를 사용하라는 것이다. 물론 시간이 많아 단순작업을 계속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냥 쿼크를 써도 상관없다.

게다가 어도비의 포토샵과 일러스트와의 호환이 자유로워 사용이 편리하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 때문에 인디자이너 배우고 싶어하는 디자이너도 많지만 한편으로는 인디자이너 배우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잡지사의 디자이너들이 인디자이너를 배울 때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 대부분 하루나 이틀정도면 충분했다. 어떤 경우에는 반나절만에 익힌 적도 있었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잡지인 코스모폴리탄 외에도 6가지 종류의 잡지를 발행하고 있는 ACP의 디자이너들의 경우에도 이들간의 교육이 전부였다.

서체 문제가 편집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기존에 사용하던 서체를 인디자이너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가?

인디자이너는 제품 초기부터 아시아 국가 언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서체가 출력이 안된다거나 사용할 수 없는 서체는 없다. 현재 인디자이너에서는



인디자이너 홍보를 위해 방한한 팀콜과 루퍼스 더클러

폰트라이브러리를 통해 400여가지의 폰트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원하는 서체 모두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서체회사들이 오픈타입의 서체들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인쇄상 또는 출력상의 서체 문제는 없다.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